

農家가 할수있는 豫防과 處置

이 순 우*

1. 설사

수분이 많은 배변을 하면 설사라고 한다.

소화불량은 아니다. 이와같은 증상은 소에 대단히 많으며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 정확한 병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중요함으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냄새 : 인간의 코는 민감한 것처럼 생각되나, 곧 무감각해진다. 즉 냄새를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석유난로를 피우는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냄새를 맡고 용하게도 이런 냄새 나는 곳에서 참고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던 사람이 1~2분 같은 방에 있으면 무감각상태가 된다. 자신도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사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 일단 멈추어 서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되면 전체를 천천히 관찰한 후 코가 무감각하게 되기전에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냄새의 강도에 따라 이상발효의 정도를 알수 있다. 냄새가 심하지 않은 설사는 기계적 장애나 간질증 또는 유행성 설사의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가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수의사의 진단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질의 구충은 일단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한 냄새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산이 강한 냄새의 경우는 전분질을 많이 급식했을 경우이며, 부패된 냄새가

강한 경우는 단백질사료의 과도한 급식이나 위장 점막이 심하게 헐어서 위장염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색상 : 급여하고 있는 사료에 따라 다르지만, 갈색이 강한 경우는 위나 소장외의 출혈을 의심하여야 한다. 직장 가까운 곳에서의 출혈은 붉은 빛이 강하며, 장출혈은 대단히 중대하나 소량의 선혈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있으면 점액이 섞여있어 물로 씻으면 콧물같은 것이 남는다. 이것 또한, 위장이 헐어 있음을 의미하며 더욱이 점막이 섞여 있을 때는 문제가 되므로 수의사의 전문적 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설사에는 급성설사와 만성설사가 있으며 급성설사는 갑자기 설사하는 것과 1~2일동안 먹지 않다가 변이 적어지며 설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되었을 때 냄새가 심하지 않은것은 다른 고통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급성설사의 주된 원인은 이상발효에 의한 것으로 냄새가 대단히 심하다. 만성설사는 냄새는 적으나 조강사료(粗剛飼料)의 잘게 썰은 사료의 급어나 간질증에 많다.

수분과 소화도 : 거의 물모양의 변이나, 점액성의 수분이 많다는 정도의 여러가지 있으나 반드시 물모양의 변이 중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급히 설사하거나 조금씩 배변하는 편이 치료가 빠르다. 소화도의 상태 및 딱딱한 조섬유의 있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조강섬유(粗剛

*대한수의사회

纖維)가 많이 섞여있는 것은 100% 사양관리의 실수에 기인한다.

처치: 설사는 소화불량의 변을 빨리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자정작용(自淨作用)이므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먹인다든가, 물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급성설사는 절식시키고, 하제(下劑)를 투여하고 물은 자유롭게 먹게하고 이어서 소화제나 중조 등을 투여한 후 원인을 확인한 후 치료하여 강한 식욕이 있을때 먼저 조사료를 급여하고 농후사료를 서서히 가해서 주도록 하여야 한다.

2. 식 체

식체 또한 병명은 아니고 사료를 먹지 않으며 배변이 적고 배가 팽창하는 증상을 말하나, 가벼운 소화불량을 제 1 위 식체라고 하며 과식의 경우 제 1 위 확장 또는 급성 제 1 위 식체라 한다. 또한 만성 제 1 위 식체라는 병명도 붙이는 경우도 있으나 후자는 병성이 다르므로 창상성 위궤점막염에서 다루어야 한다. 화학적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는 먼저 제 1 위의 운동이 정지되고 식체증상이 나타나며 가벼우면 1~2일 후 설사를 하기 시작하여 식욕도 있고 수일 후에 치유되는 정도의 제 1 위 식체도 있다. 약간 중한 것은 위장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위장 카타르트로 되며, 중중인 경우는 위장점막이 헐어서 심한 위장염이 되어 중독증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3. 과식, 제 1 위 급성확장

소가 과식하거나 관리자가 부주의 또는 너무 사료를 과다하게 과식시키거나 한 경우에 생기며 대부분의 경우 농후사료가 원인이 된다. 드물게는 말린 무우잎을 급식한 경우에도 생긴다. 고구마줄기 등의 과식은 약간 다른 증상을 나

타낸다. 이것들은 대부분 말린 사료임으로 위내의 수분을 흡수하여 팽만하고 딱딱한 덩어리가 된다. 물론 이상 발효가 일어나고 위궤 점막은 자극을 받아 위운동은 감퇴 마비된다. 겹부에서 제 1 위를 촉진하면 딱딱하다. 2일경 후에 그 부위가 늑늑해지는 것이 촉진될 때 「위 내용물이 용해되기 시작해서 호전되어간다」고 속단하면 큰 잘못이다. 치료가 되는 것은 타액, 음수, 하제 등이 먹이 덩어리에 침입해서 죽처럼 되어진다. 늑늑하여 지는것은 음수나 하제가 딱딱하게 되어 먹이덩어리 내에 침입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위험한 중후이다. 이것은 점도가 굳어졌을 때 며칠간 물에 담구어 두어도 연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마비된 위운동으로서는 녹히거나 새김이 안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는 결국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

이와같은 상태의 소의 제 1 위를 절개하면 수용분이 많이 유출되고 딱딱한 큰 먹이덩어리가 남아있어 추출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 불량 먹이덩어리를 제거하여 주면 기립불능이 되어 있던 소가 즉시 기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과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이와같은 병에 대하여 하제나 중독방지의 투약, 주사 등을 하여도 제 1 위내 이상 발효를 방지할 수 없으며 크나 적으나 전 위장점막을 헐게 만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빨리 제 1 위 절개 수술을 하여 먹이덩어리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과요법으로는 치료가 보장될 수 없으며 제 1 위 절개수술을 하면 100%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비나 손해도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빨리 수의사와 상담 조치할 것이며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식 직후에 수술하면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병이 되지 않고 치료되는 것이다.